

소형 산소포화도 영상 장치 연세대 의공학부 학부생 연구팀 개발

-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최승호 교수가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이끌고 수행한 소형 산소포화도 영상 장치 개발 연구 결과가 국내 학술지에 게재 승인되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훈훈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. (강원일보: <https://m.kwnews.co.kr/page/view/2023121911170183485>)



최승호 교수
연세대학교 의공학부



김준환
학부과정 4학년



유기연
학부과정 3학년



송예은
학부과정 3학년

- 연구팀은 교육 및 인재양성 사업인 강원 RIS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(2022RIS-005)의 지원을 받아 ㈜메디아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이달 28일 특수한 LED 소자를 사용하여 소형 산소포화도 영상 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.
- 산소포화도 영상 기술은 산소포화도를 기존 한 지점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대신 영상 형태로 여러 지점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초분광(hyperspectral) 영상 기술이고, 연구팀은 동일한 위치에서 적색과 적외선 두 가지 색상을 번갈아 방출할 수 있는 광소자를 활용하여 산소포화도 영상 시스템을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다.
- 이렇게 개발된 소형 이미징 장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부착하여 혈중 산소 포화도를 2차원 실시간 영상으로 획득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.
-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최승호 교수는 “앞으로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조성하여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(주)메디아나는 30년동안 강원지역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혼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전체 매출의 80%를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으로서, 협력업체를 포함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강원도 지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이며, 최근 의료기기 불모지 원주에서 수출 1조 매출을 이룩(<https://youtu.be/BXY12lx23Vw>)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동문이 설립한 연세대학교 의공학부의 자랑이다.